

SKT, 대규모 해킹 사고 '비상'

유심 등 정보 유출 정황 확인...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당국 비상대책반 구성...확인된 피해 없다지만 전수 조사 착수

2년 전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은 아직까지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SK텔레콤 사용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22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 공격으로 유심(USIM) 등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USIM은 통신망 내에서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데 쓰이는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다. USIM 정보가 탈취될 경우 타인이 이를 토대로 불법 USIM 칩을 만들어 신원을 도용하거나, 문자메시지(SMS) 데이터를 가로채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1일 SK텔레콤측에 침해 사고 관련 자료 보존과 제출을 요구했으며,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기술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했다.

SK텔레콤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 해킹 피해 사실을 고지하고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원하는 이용자를 위해 홈페이지와 T월드를 통해 유심 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불법 유심 기기 변경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을 강화하고 피해 의심 징후를 발견할 경우 즉각적인 이용 정지 및 안내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체 시스템 전수조사, 불법 유심 기기 변경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강화,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이용 정지 및 안내 조치를 하고 있어 문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아직까지 2차 피해나 다크웹 등 유출 사례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 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는 2023년 이래 약 2년 4개월 만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 피해로 약 30만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되며 파문이 일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 주소·아이디·USIM고유번호 등 26개 항목에 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책임을 물어 같은 해 7월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원,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원인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12년에는 KT에서 영업 시스템 전산망 해킹으로 830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공격으로 SKT가 입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공격자가 과거 잦은 해킹 사례로 보안 수준이 높은 통신사를 해킹했다는 점에서, 북한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도화로 해킹이 정교해지면서 국내 업체들의 보안 체계가 위협하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워킹그룹(GTIG)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구글의 AI '제미니'를 활용해 주한 미군의 작전 정보를 탐색하거나 암호화해 및 금융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해킹을 시도했다고 분석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신세계 지구의 날 맞아 탄소 절감 캠페인

27일까지 '탄소업수다 챌린지'도

광주신세계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탄소 절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폐현수막을 활용한 어린이 안전우산 제작에 이어 올해는 탄소 절감 챌린지와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등을 임직원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광주신세계가 진행하는 탄소 절감 캠페인은 일상 속에서 탄소를 절감하는 활동을 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에 가입하고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받기, 텀블러 사용, 친환경 마크 부착 제품 구입 등을 실천하면 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광주신세계는 또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탄소업수다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 이번 챌린지는 임직원이 쉽게 탄소 절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텀블러 사용, 잔반 남기지 않기 등을 실천한 뒤 인증하면 무료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는 현지법인으로서는 탄소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플로깅 활동 등 ESG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탄소를 절감하기 위한 작은 실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대촌농협 영농철 농기계 무상 점검·수리 행사 모습

광주시 남구 대촌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지난 21일 본점 주차장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중소형 농기계 무상점검 및 수리행사'를 열었다. <대촌농협 제공>

광주경총 'AI·반도체 일자리' 참여기업 모집

북구 소재 전자산업 등 기업 대상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내일이 행복한 인공지능(AI)·반도체 기반 일자리 잡고(Job Go)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경총은 해당 사업으로 광주시 북구 소재 AI·반도체·전자산업 기업 중 신규 인력 채용(예정) 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인재 발굴과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지역 내 우수 기업 발굴·맞춤형 일자리 등을 통해 인력난 해소, 장기근속,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기업이 청년층만 39세까지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생산 제품 재료비,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 홍보 동영상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경총은 기업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문화 행사·맞춤형 인사 노무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10개 기업을 선정해 신규 채용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5명까지 1000만원 이내를 지급한다. 평가 방법은 사전 검토, 사업 수행 적합 여부 서류 심사를 거쳐 신규 인력 채용 확인서를 확인한다.

장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조기 대선으로 차기 정부는 'AI 정부'라고 할 만큼 AI 산업이 중요해졌다"며 "광주가 AI 대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사업으로 관련 산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 신청 서류는 광주경총 홈페이지(www.gjef.or.kr)에서 내려받거나 일자리사업부(062-654-3427)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두번째 커피 60% 할인' 서비스 스타벅스 전체 회원 대상 확대

스타벅스 코리아는 "아메리카노 등 커피를 주문하면 커피 60% 할인 쿠폰을 주는 '원 모어 커피' 프로그램을 23일부터 정규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 2월 골드 회원을 대상으로 원 모어 커피를 시범 운영했는데, 참여율이 60%에 달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자 정식으로 선보이기로 했다.

원 모어 커피가 정규 서비스가 되면서 골드 회원 뿐 아니라 모든 스타벅스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쿠폰 적용 음료를 기존 2종에서 디카페인 커피를 추가해 4종으로 늘렸다.

60% 할인 혜택을 받으면 오늘의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아메리카노는 톨 사이드 기준으로 각각 1800원,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쿠폰은 하루에 한 번 제공되고, 발행일에 쓸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대기업 여성 연봉, 남성 70% 처음 넘었다

근속연수 대비 격차는 여전

국내 대기업 여성 평균 임금이 처음으로 남성의 70%를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리터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의 남녀 직원 평균 연봉 및 근속연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4년 기준 여성 평균 연봉은 7405만원으로 남성(1억561만원)의 70.1% 수준이었다.

이는 2023년의 68.6%에서 1.5%포인트(p) 높아진 수치로, 2년 전의 66.9%와 비교해도 높아지며 임금 격차가 줄었다.

하지만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보면 남녀 격차는 여전히 크다.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는 9.2년으로 남성 11.9년의 77.3%지만, 연봉은 이보다 낮은 70.1% 수준이다. 대기업에서 여성 비율이 전체 직원의 26.4%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직급이 낮은 직원이 많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리터스인덱스는 해석했다.

업종별로는 상사, 증권, 보험, 운송, 은행 등 분야에서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상사업의 경우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11.3년으로 남성(10.1년)보다 길었지만, 평균 연봉은 7000만원으로 남성(1억1510만원)의 60.8%에 그쳤다. 증권업도 여성의 근속연수가 10.8년으로 남성(10.3년)을 앞섰지만, 연봉은 남성(1억5200만원)의 65%인 9900만원이었다.

보험업은 남녀 근속연수가 각각 13년과 13.1년으로 비슷했다. 그러나 여성의 연봉은 8800만원으로 남성(1억3100만원)의 67.5%였다.

운송업은 여성의 근속연수(9.5년)가 남성(10.2년)의 92.6% 수준인데 연봉은 6400만원으로 남성(9700만원)의 66.2%였다.

은행업도 평균 근속연수가 남성 15.4년, 여성 14.5년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연봉은 남성이 1억 2800만원으로 여성(9700만원)보다 24.5% 많았다. /연합뉴스

호남통계청 5월 7일까지 상반기 고용조사

호남지방통계청은 "오는 5월 7일까지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과 제주지역의 4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군·구별 고용률과 실업률 등 고용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조사 응답자는 우편으로 발송된 인터넷 참여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해, 인터넷조사에 참여하

면 된다.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들은 오는 8월에,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10월, 기준여성의 고용 현황은 11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정구현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응답자의 정보 등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성인 55% "암호화폐 보유 했거나 갖고 있다"

2500명 설문...52% "수익 봤다"

한국 성인 중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22일 서울·경기 및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19~69세 성인 남녀 2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과거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현재 갖고 있다는 이들은 조사 대상자의 54.7%에 달했다.

복수답변 기준으로 보유목적은 '투자'(69.9%)가 가장 많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호기심'(42.1%),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단'(14.0%), '화폐를 대신하는 거래 수단'(13.7%) 의견이 뒤를 이었다.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답변은 51.6%에 달했다. 투자 금액은 1000만원 미만인 58.7%였고 예상 투자 기간은 1년 미만(60.8%)으로 단기 소액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피해를 겪었다는 답변율은 20.3%였다. 복수 답변 기준으로 피해 유형을 볼 때 거래소 관련 문제가 72.8%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거래소가 전산장애, 해킹, 폐업 등으로 제 기능을 못 했다는 것이다.

거짓 투자 정보로 사람을 꾀는 '리딩방' 피해와 영터러 암호화폐와 불법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투자 사기' 유형도 각각 44.7%와 35.5%의 답변율을 보였다.

피해 금액은 1000만원 미만인 75.1%로 가장 많았다. 큰 금액이 아닌 피해가 잦다 보니 '피해를 겪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67.7%에 달했다.

가상자산을 현재 투자하는 이들은 평균 3종 이상의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76.0%)과 이더리움(52.8%)에 대한 몰입 현상이 두드러졌다. /연합뉴스

광주상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가전내일청년 특화 지원사업'

채용 장려금·안착 지원금 지급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가전내일청년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있는 가전 산업 관련 제조 기업과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다. 사업은 '기업 지원'과 '청년 지원' 두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업 지원은 청년 신규 채용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 장려금', 청년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워크업 사업', 휴게시설 등 복지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

하는 '공동이용시설 개선 사업' 등이 있다.

청년 지원 분야는 신규 입사자의 초기 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안착 지원금'과 가전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속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성장 지원금'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600만원을 지원하는 채용 장려금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전워크업 사업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비용을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공동이용시설 개선 사업 ▲신규 채용된 청년 노동자가 입사 후 3개월, 6개

월 이상 근속 시 각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안착 지원금 등이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가전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과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일자리를플랫폼(www.gijobgo.com) 또는 광주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상의 협력사업본부(062-350-5893·5)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486.64 (-1.78)
코스닥	716.12 (+0.67)
금리(국고채 39년)	2.330 (-0.001)
환율(USD)	1423.85 (+4.75)
<small><오후 5시 10분 기준></small>	